

서울 구도심 근대 건축물 사례 조사

이정우*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e-mail: yvan1@pcu.ac.kr

A Survey on the Modern Architecture in Seoul Old CBD

Jung-Woo Lee*

*Division of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근대 건축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구도심부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들을 사례로 그 형성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은 1960년대를 전후해 건축되어 서울시의 구도심인 종로구와 중구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른바 무명건축가 또는 비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건립되었던 건축물들이다.

1. 서론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대건축물을 통한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과 활용 문제가 주목 받아오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재 제도의 발전적 정비를 위해 등록문화재 인정시기와 지정신청인의 범위 확대 등도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며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서울시 도심부에 아직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이른바 유명 건축가들에 의한 작품들이 아닌 무명 건축가 또는 비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디자인되고 지어졌던 건축물들이다.

물론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시대의 보다 입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찰자의 시야를 다양하게 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작품들은 모두 서울의 구도심에 해당하는 종로구, 중구에 위치하며 1959년과 1970년에 건립된 두 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1960년대에 건립되었다. (표1 참조)

[표 1] 조사대상 건물 개요

건물명	준공 년도	주소	규모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남대문로 빌딩	1959	중구 남대문로 5가 12-29	지상5층	944.75	204.61
총회회관	1965	종로구 평동 222	지상5층	1,897.18	298.84
백궁빌딩	1966	종로구 묘동 60-1	지하1층 지상5층	1,163.63	195.7
서울침례교회 교육관	1967	중구 중무로 5가 55-1	지하1층 지상3층	490.52	142.68
재동빌딩	1968	종로구 재동 109, 110-1	지하1층 지상3층	667.69	204.96
대한간호협회 관	1969	중구 쌍림동 88-7	지하1층 지상5층	1,306.31	219.57
JJ오피스텔	1969	종로구 청진동18	지하1층 지상7층	1,446.93	178.51
집문당 사옥	1970	종로구 와룡동 94-1, 95, 96-1	지하1층 지상4층	858.46	151.50

2. 사례조사

1) 남대문로 빌딩

건축물 대장상의 건립 연도와 위치로 볼 때, 1958년 시행되었던 남대문로, 태평로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대문 부근에 판자집만 무질서하게 늘어선 것을 보고 장관들에게

이 곳을 재건, 복구하여 수도관문의 위신을 세우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건사회부가 주관하고 시공은 육군공병대가 했으며, 대한 주택 영단은 자금을 맡았었다.¹⁾



[그림 1] 남대문로 빌딩

상가 전용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때문에 다른 건물들보다 단순, 명쾌한 입면 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격자형 루버와 넓은 개구부, 보이드로 처리된 패러핏 (parapet) 등이 모던한 느낌을 준다. 유리 생산 기술의 발달 부족으로 창 프레임이 전체의 분할구도에 비해 잘게 나뉘어져 있으며, 내부 동선은 외관과 달리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점들에서 당시의 건축이 가졌던 한계들이 보인다.

2) 총회 회관



[그림 2] 총회회관

1층 본당 부분은 1961년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65년 증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당 부분의 건립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관여했으며, 당시 모처에 있던

비행기 격납고에서 가져온 자재들로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졌지만, 1965년 증축부분은 최상층을 교단 방송국으로 사용하려 했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꽤 복잡한 디자인 과정을 포함하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부의 붉은 벽돌로 구성된 매스와 이 매스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사선으로 처리된 콘크리트 프레임, 프레임 내부의 넓은 커튼월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수직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붉은 벽돌 매스와 대응할 수 있도록 개구부의 비례, 외벽 패턴 등을 계획했음이 보인다.

1) 『대한 주택 공사 30년사』, p 91

3) 백궁 빌딩



[그림 3] 백궁빌딩

1966년 이 건물의 건립 이전에도 현재의 자리에 2층 목조 건물에 백궁 다방이 있었으며, 당시 이 다방은 인근의 단성사와 피카다리 극장을 찾는 관람객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명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직영공사를 수행했던 건축주에 의하면, 1966년 당시 시

멘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증이 있어야 할 정도로 시멘트 물량이 부족했었는데, 기록상으로는²⁾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기간 전략 사업이었던 시멘트 산업은 1964년에 이르면 공급과잉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1965년 이후 서울시내의 건설 공사가 폭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1965년 서빙고동에 대한 양회 공업(주)의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건물에서는 현장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 레미콘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전면 콘크리트 루버는 공장 생산품이 아니고 철재 형틀을 만들어 현장에서 제작했으며, 자중을 줄이기 위해 자갈 대신 코우크스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4) 서울 침례교회 교육관



[그림 4] 서울침례교회 교육관

최초에는 미국 남부 침례회 한국 선교회사 무실로 계획된 건물이며, 이후 교회 교육관과 부설 유아원

으로 활용되다 1989년 유아원 화재이후로는 교육관으로만 사용되었다.

2) 『한국의 현대 건축』, p 273

경사진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전면부 지하층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 개구부의 인방 높이에서 돌출된 루버 형식의 수평띠와 패러펫 상단의 띠가 전체 건물의 외곽을 형성하며, 마감재로는 붉은 벽돌을 주조로 부분적으로 석재가 사용되었는데, 석재의 혼용은 본당 건물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당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목과 병사들을 추모하여 1954년에 건립되었다.

5) 재동 빌딩



[그림 5] 재동빌딩

건축물 대장상의 기록으로는 최초의 용도는 병원이었으며, 1989년 이후 현재의 용도인 근린 생활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3층 외벽은 장막벽으로 감싸고 1층 부는 기둥 구조를 노출시켜 상,하층부를 분리하고 있다. 상층부 개구부에 루버를 설치하여 전체 입면에 변화를 피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상부는 패러펫 상부까지 루버를 연장시키고 루버의 간격도 좁게 구성해 주진입부임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읽혀진다.

건물의 전면이 북동향이므로 진입과 향을 고려해 계단실과 이에 연결된 홀을 건물의 정면에 배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단실 부분의 매스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입면 구성을 하려던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여기서는 고동색 타일로 외벽 마감재를 변화시켜 해결하려 했지만, 패러펫 상부로 돌출되어 있는 옥탑부의 과도한 매스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균형이 깨져버린 느낌도 있다.

6) 대한 간호 협회관

건립 이후 줄곧 간호협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재동 빌딩과 마찬가지로 1층 부분은 기둥 구조가 노출되며 상층부는 장막식 외피로 둘러싸여 있다. 2개 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곡면 유리 생산 기술의 한계 탓인지 곡률 반경이 전체 매스의



[그림 6] 대한 간호협회 회관

규모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개구부와 수평띠의 연속된 흐름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창하부와 수평띠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타일의 사이즈도 곡면처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 외피의 주요 구성 부분을 창호와 노출 콘크리트의 페이스(fascia), 타일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가하여 유리면과 분리되어 있는 수직 루버와 외부 창대석이 단순한 입면에 변화를 주고 있다.

7) JJ오피스텔 (구 삼영빌딩)



[그림 7] JJ오피스텔

현재는 원룸형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립당시에는 삼영빌딩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피스 빌딩이었다. 1960년대 서울시의 사무소 건축 건설 양상을 보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1960년대 후반기에 몰려 있어 1966년에 6-9층 건물이 111개, 10층 이상이 18개인데 비하여

1970년에는 6-9층 건물이 487개, 10층 이상이 122개로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³⁾ 이 건물도 당시의 사무소 건축 건설의 붐 속에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변지역들이 대형필지로 재개발되고 있지만 건립당시에는 주변건물들에 비해 규모상으로도 눈에 띄는 건물이었고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의 조소적 형태를 띄고 있어 1960년대 말 이 일대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서울 건축사』, p 1008

건물의 주현관이 측면의 소로 쪽에 면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에도 저층부는 별도의 출입구를 갖는 상업시설이 배치되고 기준층을 사무소 용도로 쓰는 현재의 층별 구성과 동일하게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창호는 건립 당시의 것이 아니며 수직 루버에 남아 있는 수평 루버의 설치 흔적으로 보아 건립 당시에는 다른 형태로 창나누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집문당 사옥



[그림 8] 집문당 사옥

알려져 있는 공병우 안과와 한글 타자 연구소 등으로 사용되다 1994년 이후부터는 집문당 사옥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1층 계단실은 램프로 처리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수직동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69년의 설계도면을 보면 1,2층은 치료실, 3,4층은 입원실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원형들이 대부분 남아 있다. 옥상부에는 설계도면에는 없었던 주택의 흔적이 남아 있어 추후 증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의 운동 공간으로 옥상을 사용하기 위해 일반 건물들에서는 볼 수 없는 펜스가 남아 있다. 건물 내부는 현재 기준에 비해 층고(3m)나 복도의 폭, 실의 크기 등이 협소하게 계획되어 있어 신체치수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외관은 기둥 구조가 노출된 1층부와 상층부 외피로 구분되며, 층고가 낮고 수평 방향이 강조되어 있어 건물 규모에 비해 스케일이 위압적이지 않다.

3. 결론

이상에서 1960년대를 전후에 건립되었던 서울시 도심부의 건축물들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작은 스케일과 단순한 매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루버의 디자인이나 재료의 혼용 등

을 통해 타건물들과 구별되는 의장적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건축기술의 발달정도의 미비와 관련 정보의 부족 등과 같은 불리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건축의 발전을 이끌었던 저류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흔적들이 아직 비교적 온전하게 원형을 유지하며 서울 도심부에 남아있다는 것은 소중한 건축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자산들의 생명력은 개발의 논리에 밀려 그다지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대한 주택 공사 30년사”, 대한 주택 공사, 1992
- [2] “서울 건축사”, 서울시, 1999
- [3] “한국의 현대 건축”, 한국 건축가 협회, 1994
- [4] “한국 근세 과학 기술 100년사 조사 연구 - 건축 분야”, 한국 과학 재단, 1990
- [5] 이문보, “건축 법규 개설”, 보성사, 1964
- [6] 안창모, “한국 현대 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6
- [7] 김봉렬, “60년대 모더니즘의 현대적 의미”, 공간, 1993.4
- [8] 김경수, “한국 현대 건축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1989
- [9] 정태용, “한국 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1994